



Built to Lead

즉시 배포용: 2016년 1월 11일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CUOMO 주지사의 2016 어젠다의 열 네번째 제안: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기회 증대

주지사, 기관과 청이 발급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주정부 예산 계약에 30% MWBE 목표를 적용하도록 추진하여 추가 650억 달러 주 예산이 전국 최고의 MWBE 목표 하에 있도록 함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2016 어젠다의 14번째 고유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: 뉴욕주 전역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기회 증대.

2014년에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MWBE 주 계약 활용을 위한 30% 목표를 제정하였습니다. 그것은 전국의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였습니다. 그러나 주 법률에 의거 그 목표는 주 기관과 청이 발급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; 그것은 시, 카운티, 타운, 빌리지 및 교육구 같은 지자체에 제공되는 년 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금년에 주지사는 MWBE 목표 설정을 이러한 지자체들과 하위 계약하는 지자체 및 주체들에게 확대함으로써 이 단절을 해결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MWBE 참여를 위한 새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 역사상 최대의 주 예산 풀을 활용할 것입니다.

“우리는 경제적 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MWBE 프로그램을 모든 주 예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”라고 **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** “이 제안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이 주 계약에서 추가 650억 달러를 위해 경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. 이는 경제 정의에서 전국적 리더로서의 뉴욕주의 전통을 지속하는 것이며 본인은 금년에도 그 투쟁을 리드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.”

2011년에 취임한 이래 Cuomo 지사는 주의 MWBE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가치있는 계약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였습니다. 같은 해에 그의 첫 번째 주 시정 연설에서 Cuomo 지사는 전주 MWBE 목표를 10에서 20%로 인상하였으며 장벽을 없애어 이러한 기업들의 주 계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적 MWBE 팀을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.

2014년까지 MWBE 팀이 추진한 온라인 보고 제도 개선, 인증 절차 간소화, 아웃리치 이니셔티브 증대 및 주 후원 채권 프로그램 등의 많은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주지사가 2011년에 설정한 20% 목표를 상회하는 MWBE 활용도를 시현하였습니다.

그의 이전 20% MWBE 목표를 뛰어넘은 후에 주지사는 다시 한 번 그 기준을 올려 30% 활용도라는 [새 전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.](#)

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4,300여 MWBE들이 인증 받고, 3,600여명이 재인증 받았으며, 주 계약에서 63억 달러 이상을 여성 또는 소수자 소유 기업이 확보하였습니다. 그 결과, 주 계약에서 MWBE 인증 및 활용도가 단 5년만에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